

# '가전산업·K뷰티·전통주' 보고 배우기...전학가는 어른들

경기

전자산업의 역사 한눈에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K뷰티 선도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  
전통주 체험하고 싶다면...신생 양조장 '오산양조'  
공장에 예술적 의미 담았다 '김중업건축박물관'

'전학은 아이들이나 가는 것'이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다. 이제 성인들도 직업과 관련된 산업 관광지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전혀 다른 분야의 현장을 보며 상식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전학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새로운 배움을 향한 도전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 중심지인 경기도에선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어른들의 니즈(needs)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구수한 누룩 향을 맡으며 직접 전통주를 빚고 한류의 중심인 K뷰티의 성장 과정을 둘러보자.

◇가전산업의 발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가전산업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꿨다. 전기의 발견에서 시작해서 최신 스마트 컨버전스 가전제품의 등장까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은 전자 산업의 역사를 돌아보고 인류를 위한 혁신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투어 시작은 뮤지엄 5층의 '발명가의 시대'에서 시작된다. 인류 역사에 중요한 기술과 발명품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들을 소개한다.

가원전 600년 그리스 탈레스의 정전기 발견, 최초의 전기저장장치 라이덴병, 에디슨의 초기 상용 백열등 등 인류 발전과 전자 산업의 뿌리를 볼 수 있다. 이어서 전기를 이용한 조명, 통신, 가전의 발달과정과 의미를 알아본다. 아울러 음식 저장의 혁명을 가져온 냉장고처럼 가전제품의 역사적인 등장과 흥미로운 초기 모델을 살펴볼 수 있다.

3층 '기업 혁신의 시대'에서는 정보처리의 고속화를 가져온 반도체, 정보의 대중화를 가져온 디스플레이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초창기의 커다란 창문형 TV와 컬러TV 시대를 연 제품부터 최신형 디스플레이 제품까지 만날 수 있다.

마지막 1층에서는 핸드폰으로 제어되는 스마트홈을 경험하고 노트북과 휴대용 등 최신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평일 뮤지엄 관람은 온라인 사전예약자 대상으로 전문 도슨트 투어가 진행된다. 주말에는 별도 예약 없이 자유 관람으로 운영 된다.

◇한류의 중심 K뷰티의 성지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은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기업의 역사를 감성적으로 담은 홍보관이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뷰티 산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정을 보여준다. 스토리가든을 구성하는 각 공간은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물입을 유도하며 감성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

특히 한 소년 이 부엌에서 어머니가 동백 씨앗을 골라서 정성껏 동백기름을 만드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 K뷰티 기업을 만든 이야기가 감동적인데 그 소년이 바로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고(故) 서성한 회장이다.

스토리가든 투어는 정해진 시간에 전문 도슨트와 동행하는 방식이다. 회사의 설립과 발전과정을 애니메이션으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기업의 역사를 감성적으로 담은 홍보관인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

▲아모레퍼시픽이 6.25전쟁 당시 피난지인 부산에서 만들어 큰 인기를 끈 'ABC포마드'와 '메로디크림'.

로 관람하고 재현된 어머니의 부엌을 구경한다. 아모레퍼시픽의 성장 이야기에서 6.25전쟁과 관련된 얘기도 있다. 피난지인 부산에서 'ABC포마드'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뒀는데, 전쟁 통에 화장품으로 맛 부리는 것이 유행이었다니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다.

스토리가든은 주로 20~30대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한다. 아모레퍼시픽의 메인 생산시설로 자동화된 첨단 생산 라인을 볼 수 있어 국내 화장품관련 학과와 기업인들의 필수 견학 코스다.

◇오산의 대표 전통주를 찾아서 '오산양조'

오산양조는 설립된 지 3년 된 신생 양조장이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통주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니 인근 지역의 양조장 중 막내 격이다.

그러나 오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땀물 뭉친 저력 있는 곳이기도 하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마을기업으로 양조장을 설립하고 오산의 대표 전통주를 넘어 특산물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로 정성껏 술을 빚는다.

양조장은 제조장과 실습장 두 공간으로 나뉜다. 제조장의 전면은 술을 빚는 과정을 밖에서도 훤히 보이도록 유리로 만들었다. 실제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작업 과정을 보고 들어와서 막걸리를 시음하고 구매해 가기도 한다. 실습장에서는 다양한 전통주 관련 교육과 체험이 진행된다.

오산양조장의 대표 술은 오산막걸리다. 덧술을 한번 더 한 이양주 프리미엄 막걸리로 구수한 누룩 향과 부드러운

첫 느낌이 인상적이다. 약주인 오매백주와 증류주인 독산도 선 보인다. 모두 오산에서 난 쌀을 사용하며 감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가격도 저렴한 편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양조장이 위치한 곳은 옛 오매정터였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오산장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오산역 쪽으로 상설화된 오색시장이 중심이다. 오산양조는 오색시장과 오산천을 잇는 징검다리를 꿈꾼다.

오산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양조장에 들어서 막걸리 맛도 보고 체험도 즐기며 오산천의 아름다운 경관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양조장이다.

◇한국 현대건축의 시작 '김중업건축박물관'

김중업은 한국 현대건축의 시작으로 상징되는 건축가다. 김중업건축박물관은 현대건축 거장의 작품세계를 통해 안양의 역사까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박물관이 위치한 장소는 김중업이 설계한 유유산업의 공장이 있던 곳이다. 1959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당시 이례적으로 공장에 예술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 산업건축물이다.

2007년 공장이 이전하면서 당시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관이 다른 건물과는 확연히 다른데, 기둥 역할의 구조물을 외부로 노출해 내부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축가 김중업의 개성이 잘 드러난 건물로 평가받는다.

1층과 2층으로 나뉜 전시실은 '건축이란 인간이 빚어놓은 엄청난 손짓이며 귀한 싸인'이라는 김중업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주한프랑스대사관은 땅의 형태에 순응하는 전통건축의 정신을 계승하며, 한옥 처마 고유의 아름다운 곡선을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재현했다.

여기에 프랑스가 추구하는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미학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1965년 샤를 드골 대통령으로부터 공로 훈장과 기사 칭호까지 받았다. 2013년 건축 전문가 100명이 뽑은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에서도 2위에 선정되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김중업의 스승이자 모더니즘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 코르뷔제의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상설전시 외에도 근대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기획 전시를 선보이고 있으며 알찬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경인일보 김중찬기자



한국 현대건축의 시작 '김중업건축박물관' 전시실 모습.



전자산업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내부모습.



설립된지 3년된 신생 양조장인 오산양조의 술 빚는 장면.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釜山日報 제주新보 新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